

 <div>산업통상자원부</div> <div>http://www.motie.go.kr</div>	<div>보도자료</div>		<div>국민의 생활을 위한 정부혁신</div> <div>보다나은 정부</div>
<div>2019년 02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div> <div>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02. 14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</div>			
<div>배포일시</div>	<div>2019. 02. 14.(목)</div>	<div>담당부서</div>	<div>신재생에너지보급과</div>
<div>담당과장</div>	<div>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</div>	<div>담당자</div>	<div>강수진 주무관(044-203-5377)</div>

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시작!

-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한다 -

□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원 증가한 2,670억 원으로,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.67배로 증가했다.

○ 이 사업으로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·건물에 설치하면,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.

* 보급지원 예산(억원) : ('15) 1,183, ('16) 1,107, ('17) 1,000, ('18) 2,267, ('19) 2,670

□ 특히,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.

< '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요 개편내용 >

- ①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지원 강화
- ②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(50 → 30%)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
- ③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

①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보급 확대

-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%까지 지원한다.
-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,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)은 전기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, 신제품이다.
-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, 세계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·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.
-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.

②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(50→30%)

- 반면 올 해부터 주택,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%로 낮아진다.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% 감소된 점이 고려되었다.
- * 주택태양광 설치비 추이 : ('10) 5.7백만원/kW → ('12) 3.9백만원/kW → ('14) 3백만원/kW → ('16) 2.6백만원/kW → ('18) 2.1백만원/kW → ('19) 1.85백만원/kW
- * '19년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원 = 정부 보조금 168만원 + 소비자 부담금 392만원
-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. 이로서 동일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·건물에 보조금을 지원 하게 된다.

-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%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,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·소비하여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.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(392만원)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.

< 태양광 3kW 설치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 >

설치전 사용량	설치전 전기요금(A)	설치후 사용량	설치후 전기요금(B)	절감액 (A-B)
350kWh/월	55,080원/월	설치전(350) - 발전량(321) = 29kWh/월	7,635원/월	47,445원/월

*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금액 반영

* 실제 부과되는 요금은 발전량 및 기타 전기료 할인조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③ 정보통신기술(ICT)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

-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·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(ICT)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, 건물,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.
-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,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.
-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,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.

-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(3년간)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%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.
- 또한,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, 우체국, 경로당,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.

- 2018년 한 해 이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12만 5천 4백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다. 2017년 대비 2.8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, 보급 설비의 97%를 태양광(121,499개소)이 차지하고 있다.

<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실적>

연도	투입 예산	보급 설비(개소)	태양광(용량, 호)
2018	2,267 억원	125,437 개소	121,499 개소 (138MW)
2017	1,000 억원	45,588 개소	41,319 개소 (48MW)

* 사업승인 기준

- 지난해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비용 상승요인을 없애고자 ‘총사업비 상한제’와 ‘태양광(모듈·인버터) 조달구매’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.

- 산업통상자원부는 ‘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.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,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·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.

-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www.knrec.or.kr)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(<https://greenhome.kemco.or.kr>)에 게재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강수진 주무관(☎ 044-203-53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I. 2018년도 추진 실적

□ 총괄

연도	투입 예산	보급 설비(개소)	태양광(용량, 호)
2018	2,267 억원	125,437 개소	138MW (121,499호)
2017	1,000 억원	45,588 개소	48MW (41,319호)

- '17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175%, 자가용 태양광(용량) 188% 확대 보급

□ 주요 성과

- (총사업비 상한제) 소비자간 총설치비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주택 태양광(3kW)에 적정 시장가를 반영한 총사업비 상한액(6.3백만원) 설정

* ('17년) 최소 약 4백만원, 최대 약 9백만원 ('18년) 최소 약 4.5백만원, 최대 6.3백만원

- (태양광 모듈·인버터 조달구매) 불투명한 자재가격 등 정보 격차 해결 및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비용 상승의 개선책으로 조달 의무구매 실시

-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조기업이 등록한 제품단가 비교구매가 가능하며, 자재 구입경로 간소화로 불필요한 소비자 비용 상승 해결

- (ICT통합모니터링) 설비 가동률, 기후·환경 영향 분석 등 빅데이터의 필요성 및 실시간 설비상태 점검 요구에 따라 도입(총 22억원)

- (보급설비 현장점검) 기금변경(9억 확보)을 통해 의무사후관리 기간 (3년) 만료 이후 가동률 저하 등의 예상 설비 현장 점검 실시

*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8,488 건의 고장유무, 안전, 가동상황 등 점검

Ⅱ.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점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'18년 예산		'19년 예산
	당초	추경	
□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	190,000	226,730	267,000
가. 주택지원	70,000	89,751	70,000
나. 건물지원	35,000	35,000	35,000
다. 융복합지원	59,000	59,000	63,500
라. 지역지원	26,000	26,249	26,000
마. (신규) 공공기관 태양광보급	-	14,500	71,000
바. (신규) 원스톱서비스플랫폼	-	-	1,000
사. (신규) 사후관리	-	2,230	500

①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지원 확대, ② 일반태양광 보조율 인하(50→30%)

○ 지붕일체형 BIPV 50%, 외벽수직형 BIPV 70% 우선지원

* 일반태양광 설치비 : ('16) 26백만원/kW → ('18) 2.1백만원/kW → ('19) 1.85백만원/kW

< 태양광 보조율 개편 >

내역사업	지원대상	2018년(기준)	2019년(개편)	
주택지원	단독, 공동주택	일반태양광 50%	→ 일반태양광 30%	
건물지원	건물, 상가, 공장, 축사 등	일반태양광 50% BIPV 50%	→ 일반태양광 30% 지붕일체형BIPV 50% 우선 외벽수직형BIPV 70% 지원	
융복합지원	2이상 에너지원(융합), 특정 구역(복합)	국비 50% 일률지원	→ '20년 사업공고 반영 BIPV 지붕일체형 50%,	
지역지원	지자체 소유 시설	국비 45% 일률지원	→ 외벽수직형 70% 우선지원	

③ ICT통합모니터링시스템(REMS) 확대 적용

○ 융복합지원사업 도입을 시작('18년)으로 '19년에 공공임대주택지원, 건물지원, 공공기관태양광 사업에 확대 적용 및 빅데이터 구축

※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이란? RTU(Remote Terminal Unit) 원격단말장치를 개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, 실시간으로 발전량 등 데이터를 기록·관리하는 시스템

④ 참여기업의 의무사후관리 강화

-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의무사후관리(3년, 연 1회 이상)를 성실 수행하도록 이행을 85%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배제

* ('18년) 이행을 70% 이하에 -30점 → ('19년) 85% 미만 참여기업 차년도 사업 배제

⑤ 국토부 협업,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

- 노후 건물 및 쇠퇴한 舊도심의 재건축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 할 수 있도록 융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
-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이 3~6년인 점을 고려, 既선정·추진 중인 뉴딜사업 대상지 위주로 융복합지원 사업과 연계 필요

* '20년 융복합사업 공고('19년 2월)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가점부여

⑥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시, 주거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

- (공공기관) 정부세종청사, 경찰서, 우체국 등 전국의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국민수용성 극대화
- (경로당, 마을회관)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구성원이 공동체로 활동하는 공간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⑦ 소비자 중심의 보조금 신청방식으로 주택지원 사업체계 개편

- 先 계약(소비자-참여기업) 後 보조금 신청 방식에서 先 보조금 신청 (소비자→지자체) 後 계약(지원대상자-참여기업) 방식 시범 도입('19.下)